기획

▶1면에서 이어짐

우리학교는 교육여건 부문에서 23위를 기록해 이번 종합 순위 하락에 가장 큰 요인이 됐다. 타 대학의 경우 이 부문에서 고려대 8위, 한양대 7위, 연세대 2위, 성균관대 3위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세부 항목인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에서는 36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26위를 였다.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의 경우 재학생 수가 많은 대학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연세대 19위, 고려대 31위, 성균관대는 29위를 기록해 우리학교보다는 높았다.

해당 지표들은 전체 인원수 대비 수혜율을 따지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종합대학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학교는 2015년 정보공시된 대학알리미 기준 재학생 수가 25,259명으로 주요 사립대학 중 가장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약세인 점은 장학금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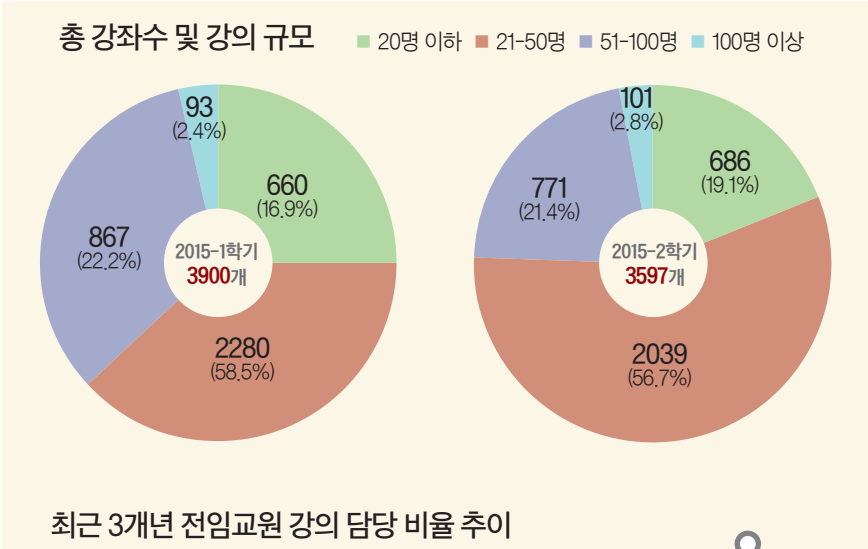
전임교원 강의비율·강의규모 모두 40위 안에 못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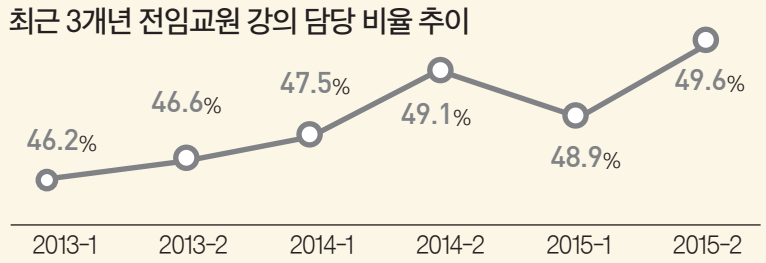
교수 확보율은 지난해까지 1위를 유지하다가 11위까지 떨어졌다. 미래정책원 신상협(국제학) 원장은 "2007년 700여 명에서 2012년 1,400여 명의 교수 규모로 키우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며 "내부에서 교수 채용에 너무 많은 재원을 쏟는다는 문제제기도 있어, 이후 교수 규모 수준이 답보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신설된 지표에서는 우리신문이 꾸준히 제기해온 교육의 질 저하와 연관된 지표들이 낮은점수를 기록했다. 신설 지표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40위 밖)', '강의 규모(40위 밖)', '외부 경력 교원 비율(40위 밖)', '기숙사 수용률(27위)' 등이 대표적이다.

학생들이 직접 체감하는 강의 여건 지표인 '대형 강의' 부문은 40위 밖이다. 대형 강의는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기 때문에 밀도 있는 수업이 어렵고 그만큼 강의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생들의 불만과 함께, 교·강사 사이에서도 강의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측에서 이번 학기부터 대형강의 수를 축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130명 기준의 강의를 축소하는 것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세부 지표처럼 '20인 이하 강의 수, 21~50인 강의 수, 51~100인 강의 수, 101~200인 강의 수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닌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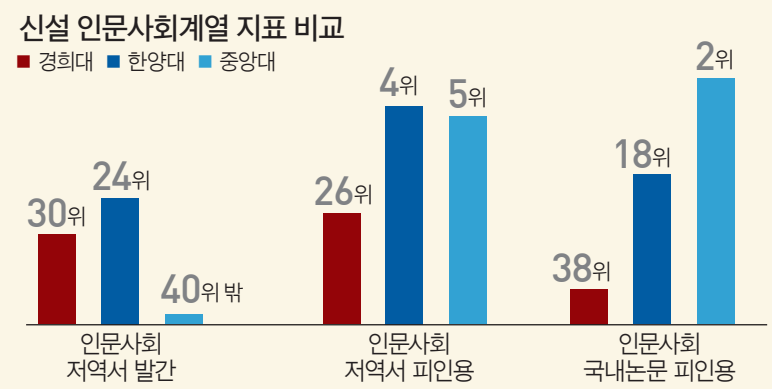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은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와 전체 개설 강의 수와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경쟁대학 대비 전임교원 관련 지표

구분	2014년 전임교원 1인당 교내연구비	2014년 전임교원 1인당 교외연구비	2014년 전임교원 1인당 국내논문수	2014년 전임교원 1인당 국외논문수	2015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재학생기준)	2015년 전임교원수
경희대	646만원	8984만원	0.56	0.64	25.4명	3.375명
고려대	999만원	1억 5146만원	0.47	0.87	23.6명	4,324명
성균관대	2126만원	1억 6275만원	0.46	0.93	21.3명	2,348명
연세대	839만원	1억 5380만원	0.46	0.85	22.4명	4,195명
중앙대	1,059만원	7591만원	0.70	0.64	27.9명	1.924명
한양대	1,132만원	1억 3580만원	0.64	0.78	25.6명	3,372명



교수당 자체연구비 30위로 추락 인문사회 관련지표 대체로 약세

우리학교는 연간 12시간을 책임강의시수로 정하고 있다.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책임강의시수는 15시간, 중앙대는 트랙별로 12~15시간을 유지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치다.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가 적다는 것은 비전임 교원 증가와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수 측은 책임강의시수가 적으면 연구시간 확보에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수 연구 성과가 그에 비례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딜레마다. 신 원장은 "우리학교 학생 숫자는 매우 많으나 전임교원 숫자는 제한돼있다"며 "전임교원 책임강의시수를 12시간에서 15시간으로 올리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교수연구' 부문은 9위를 기록했지만 세부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차 악화되는 모양새다. 올해 신설한 인문사회계열 관련 지표에서 우리학교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새로 추가된 '인문사회 저역서 발간', '인문사회 저역서 피인용', '인문사회 국내논문 피인용' 항목에서 각각 30위, 26위, 38위를 기록했다. 한양대가 각각 24위, 4위, 18위에 오른 것과는 많은 차이다. 이는 구성원이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재정적으로 연구를 뒷받침하는 항목인 '계열 평균 교수 당 자체 연구비'가 30위를 기록한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해당 지표는 2013년 5위에서 2014년 15위로 롤러코스터같은 하락을 경험한 바 있는데 올해는 15계단 추가 하락했다. 재정 악화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결국 '교수연구' 부문에서 가장 큰 가중치인 30점을 두고 있는 '국제학술지 논문 당 피인용' 항목도 지난해 9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

산학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도 낮게 나왔다. '과학기술교수 당 산학협력 수익' 항목이 36위에 그쳤다. 종합평가 순위에서 우리학교보다 높은 순위를 보인 한양대 서울캠퍼스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각각 6위와 18위를 기록했다.

신설된 부문인 '학생 교육 노력 및 성과'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졸업생 창업 활동', '창업교육 비율' 항목은 각각 25위와 40위 밖을 기록했다. 이번 대학평가에서는 취업률과 더불어 대학의 창업 지원 노력에도 큰 배점을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학교 '창업지원센터'의 예산이 부족하고 지원이 열악하다는 점은 학생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그 같은 결과는 지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학생 사회진출 관련 지표도 약세 취업·창업 프로그램 강화 해야

기존 지표였던 '순수취업률', '유지취업률'은 28위와 17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원장은 "대학평가 지표가 변화하면서 창업관련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며 "우리학교가 이 부분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졸업생의 취업·창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체 경험이 있는 교수를 초빙하거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커리큘럼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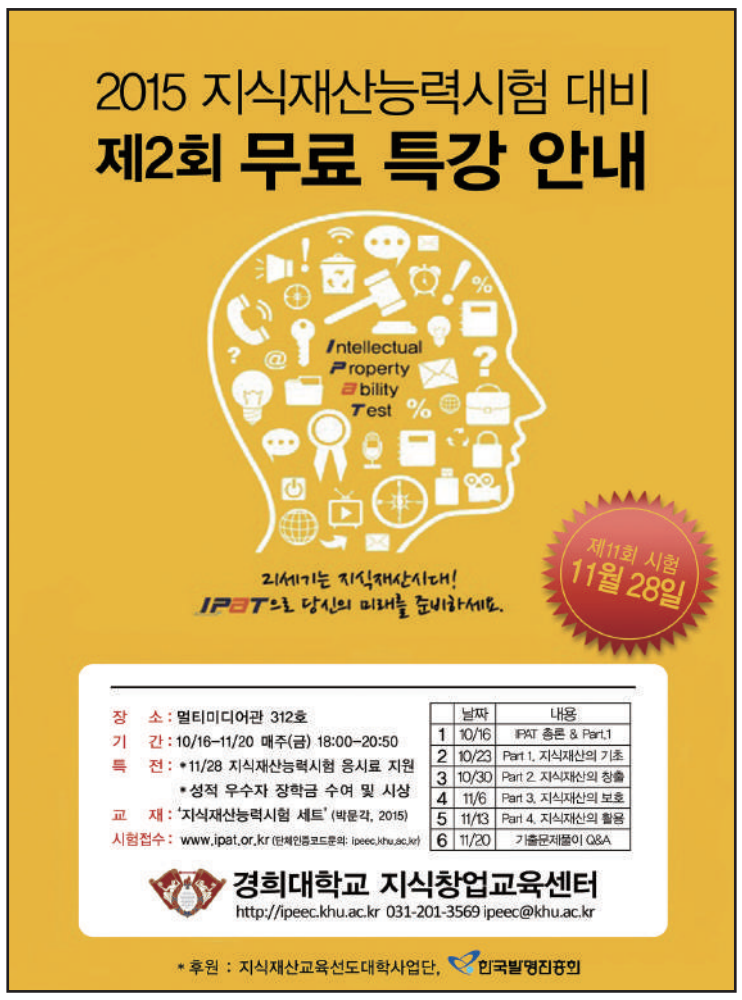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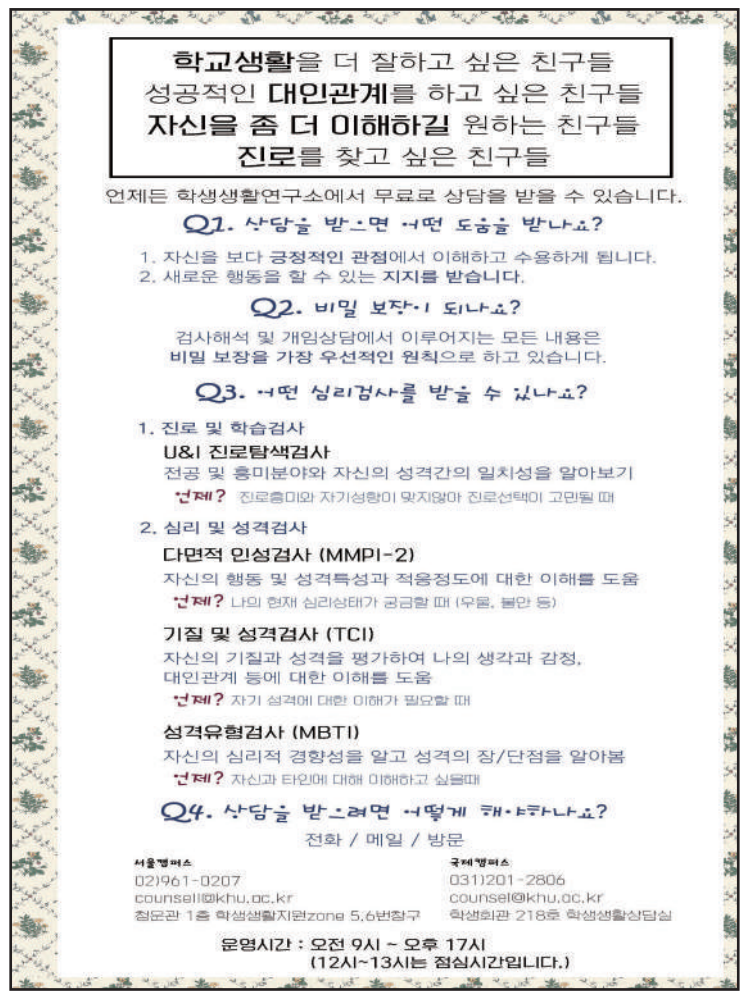
우리학교의 취업·창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동아일보·채널A와 딜로이트 컨설팅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학의 취업 지원 역량을 파악하는 '2015년 청년드림대학'에서 우리학교는 52개 대학을 3등급(최우수청년드림대학·우수청년드림대학·청년드림대학)으로 나눈 결과 청년드림대학에 선정됐다. 고려대·성균관대·한양대는 최우수청년드림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평판도 부문에서는 특성화와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지표가 눈에 띈다. 특성화의 경우 대학을 떠올렸을 때 확실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면 성균관대 1위, 한양대 7위, 서강대 9위, 중앙대 12위 등에 한참 뒤쳐진 19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대학은 경희대 하면 떠올릴 확실한 이미지 전략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역사회에 기여가 큰 대학 지표에서도 우리대학은 22위를 보이고 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나 GSC 등을 통해 활발한 사회기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대학으로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결과다. '국가 및 사회 전반에 기여가 큰 대학' 순위에서도 16위로 나타나 우리대학이 매년 펼치고 있는 관련 활동이나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구성원 요구했던 '교육여건' 개선 최우선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편 조인원 총장은 지난달 27일 교무위원회에서 '획일적인 평가기준이 적용되는 대학평가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며 이번 결과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이같은 결과의 원인을 대학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미진했던 것에서 찾기도 했다. 그 사례로 지난해 전임교원의 강의 시수 변경이 집중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했던 것을 거론하며 전체 교무위원 모두가 깊은 책임의식을 가져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신문은 해마다 각종 대학평가가 있을 때마다 '순위 등락에 따라 대학의 정책을 정하지 말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학교 구성원이 항상 대학 측에 요구해왔던 '교육 여건', '교육 인프라' 개선이 낮은 평가결과라는 '현실'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지금 우리대학이 가장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교육여건이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문 역시 교육여건일 것이다.

문제는 대학이 해당부문에 투자를 하는 방향과 철학이다. 단순히 떨어진 지표를 몇 점 끌어올려 순위 몇 개를 올리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오랜기간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온 교육환경을 긴 안목에서 만들어진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개선해갈 것인가는 그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